2023년 6월 4일(주일) 제1633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3 홍해작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새벽 기도회 : 6. 6(화) - 6. 17(토) 새벽 5시 30분 - 6시 / 장소 : 본당
특별새벽 기도회 : 6. 19(월) - 6. 24(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위임목사

우리 교회는 6월 6일(화)부터 24일(토)까지 17일간 특별새벽 기도회인 '홍해작전'(본부장: 서은석 장로)을 진행합니다.

홍해작전은 서울교회 창립(1991년 11월 24일) 이듬해인 1992년 6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후 매년 같은 기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2회째를 맞습니다.

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출 14:10)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기적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이 무너져 지친 영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진 같은 재난과 환경문제 등 국가가 직면한 외적인 위기 상황, 사회적 갈등, 개인과 가정의 내적인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여섯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새벽을 깨움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 운동입니다. '2023 홍해작전'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마 8:7)"라는 주제로 서울교회 2층 본당에서 6월 6일(화)부터 24일(토)까지 진행되며,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열일곱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펼친 고침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서울교회 성도들은 물론 가까운 이웃들이 고침을 받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할 것입니다. 일정은 6월 4일 주일 찬양예배 시 개전 발대식을 갖고 작전에 돌입해 6월 6일(화)부터 17일(토)까지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회로, 6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특별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홍해작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각 교구별, 다락방별, 온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알람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카풀로 다 함께 참여해 고난과 수렁에 빠진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로 홍해를 다 함께 건너서 6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 승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

1. 가정과 일터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 12:7b)
주여, 온 가족의 구원과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되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케 고쳐주옵소서.

2. 교회와 사명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행 9:31)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3. 이웃과 사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주여, 주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4. 선교지와 세계교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 33:12)
주여, 선교 현지의 백성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사회가 되도록 고쳐주옵소서.

5. 환경과 생태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 24:1)
주여,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피조세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6. 나라와 민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주여, 모든 위정자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도록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 15:1-5)

손달익 위임목사

사 5:1-2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 가꾸시듯 가꾸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며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한 버릴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포도 또는 포도나무는 구약에 300회, 신약에 61회가 언급되었을 만큼 올리브(감람나무), 무화과, 종려나무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과수입니다. 포도나무는 목재용이나 관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오직 열매에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원리는 본문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5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2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삶과 교회 사역에 열매가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와 연합하여 죄를 이길 힘을 얻고 그를 믿어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벗어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 관계를 점검해야

인생이 어려워지고 삶이 많은 난관에 봉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능력도 있고 스펙도 화려하고 주변의 배경도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열심이나 경험과 식견 등은 충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미흡하여 영적 성장과 결실이 어려운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첫 번 조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과의 연합에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에 힘쓰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5절). 포도나무는 가지가 그 자체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최선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의 여러 요소들을 성공하는 삶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큰 차이도 없고 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뿌리에서 절단된 나뭇가지처럼 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신약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 정결한 삶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들이 청결할 때 가능합니다.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과수원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 해의 농사가 결정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과수원 주인들이 서로 밭을 바꾸어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과수원의 가지치기를 스스로 하게 되면 가지들이 아까워 냉정하게 가지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어 원칙대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바로 정리되어야 결실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안과 밖은 모두 정결치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롬 7:18-19)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하셨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7-8)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자기를 깨끗하게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패한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의 해결책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5절)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만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와 연합하여 죄를 이길 힘을 얻고 그를 믿어 모든 죄의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서 벗어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3.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이며, 둘째는 사역의 결실입니다. 마 5장에 기록된 8복의 말씀이나 갈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간 내면의 성품과 관련된 가치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 3:16)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품과 인격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또 헌신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든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엡 4:12)이 우리의 사역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교회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야곱과 요셉을 애굽으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인근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 보내시므로 각자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열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함께 홍해를 건넙시다!

서은석 장로
(2023 홍해작전 본부장)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달려오셨나요? 혹시 앞만 보고 달려오지는 않았나요? 달려온 여정이 순조롭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은 달려오는 도중에 쉼을 갖고 상처받은 곳에 고침은 받아 보셨나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서울교회 2023 홍해작전에 적극 참여합시다.

서울교회 홍해작전은 창립 이듬해인 1992년 6월부터 실시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기적의 역사를 교훈 삼아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환경문제 등 국내외적인 여러 위기 상황과 사회적 갈등,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가의 안정, 한국교회의 개혁, 서울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 개인과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벽을 깨움으로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영적인 전투를 결행하는 것입니다.

2023 홍해작전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마 8:7)"라는 주제로 서울교회 본당에서 6월 6일(화)부터 6월 24일(토)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열일곱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펼치신 고침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작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고침을 받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작전 일정은 6월 4일(주) 찬양예배 시 개전 발대식을 갖고 작전에 돌입하여 6월 6일(화)부터 6월 17일(토)까지는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회로, 6월 19일(월)부터 6월 24일(토)까지는 5시부터 6시까지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각 교구별, 다락방, 온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의 참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알람을 요청하여 함께 새벽을 깨우며 카풀 등을 통해 다 함께 참여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홍해작전 본부에서는 고난과 수렁에 빠진 많은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홍해작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출석상과 전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과 많은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다 함께 건너서 6월 25일(주) 찬양예배 시 승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우 안수집사
(3부 청년예배 찬양팀)

매주 찬양예배로 큰 은혜 주시고, 새 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부 예배 찬양팀은 지난 5월 26일(금)-27일(토)까지 홍천으로 MT를 떠났습니다. 지난 5달간 열심히 찬양연습으로 3부 예배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막상 MT를 가자는 의견은 나왔지만 서로의 일정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더는 안되겠다 싶어 청년부 인원들 시험기간 전에는 가자! 라는 마음으로 숙소를 우선 예약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8명의 팀원들과 이삭(현종필 목사님 아들), 세희(한대석 안수집사 딸), 제 아들 아준이 그렇게 11명의 정예 멤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서먹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신원 자매의 예배 간증으로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찬양하는 회중들의 모습 속에 느껴지는 은혜와 감사, 사랑부의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 매주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갖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에서 출발한 장해라 자매가 도착하였고,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야외 바베큐 가든에서 식사한 터라 3명의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에 감사했고, 옆에서 헌신적으로 고기를 구워주시는 한대석 안수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윤주일 안수집사님(팀파니스트), 이요한 형제(건반 연주자)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웠습니다. 올해 처음 서울교회에 오게 된 이요한 형제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교회의 분쟁 이후 이곳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크게 느낀다는 고백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신앙적인 이야기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니 어느덧 새벽 4시가 넘었고, 새벽 6시까지 나눔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팀 MT여행을 통해 느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찬양과 예배로 회복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가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대치동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3부 예배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성도님, 손달익 위임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6월은 6. 25 기념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적도 있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 25 전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현재 우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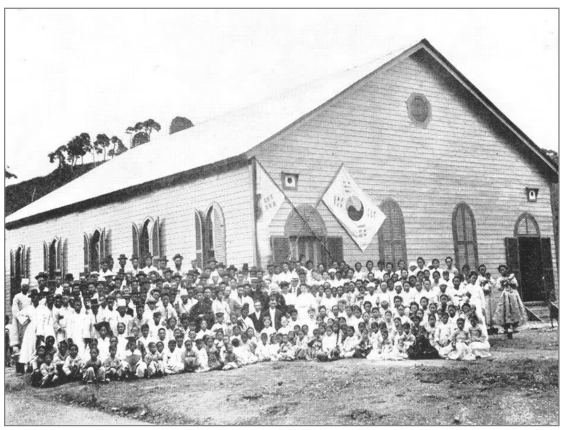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분단된 국가로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 싼 강대국들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찬 모두가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8)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

로버트 하디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


원산 남동감리교회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 장면

교회사에는 대부흥운동이라 명명되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굵직한 대부흥운동이 전세계에서 발생했다. 영국, 미국, 웨일즈, 아일랜드, 인도, 한국, 호주, 만주 등지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중 미국과 웨일즈, 한국의 사례를 대부흥이라 부른다. 우리는 흔히 부흥을 교세의 성장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부흥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으면 교세의 성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대부흥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있다. 따라서 대부흥운동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통렬한 죄의 고백, 감정적인 고양, 도덕성의 회복, 영적 각성 등이라 할 수 있다. 교세의 성장은 교회의 변화에 따른 부수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는 1907년 평양에서 장로회 중심으로 퍼져나간 평양대부흥운동이 유명하지만 가장 먼저 촉발된 대부흥운동은 1903년의 원산대부흥이다. 캐나다 출신의 의료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는 장로회와 감리회의 선교사들과 함께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공부를 겸한 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하디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한국인을 무시하고 태만하게 사역하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과 나태를 회개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교가 열매를 거의 거두지 못한 것에 패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다.

하디에게서 시작된 죄의 고백이 점차 한국인들에게 퍼져나갔다. 많은 신자들이 회심을 경험하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904년에도 롭(A. F. Robb) 선교사가 인도하던 집회에서 선교사 자신이 하디와 유사한 영적 체험을 하였고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 흐느끼면서 통회자복하였다.

원산의 대부흥 소식을 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은 1906년 8월 하디를 사경회의 강사로 초청하였다.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통해 평양에서도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고대했다. 서서히 분위기가 무르익어갔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겨울 남자 사경회에서 평양대부흥이 폭발했다. 14일 월요일 저녁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블레어(W. N. Blair) 선교사가 고전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이라"는 설교를 한 후 리(Graham Lee)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자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비틀거나 울면서 바닥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15일에도 공개적인 회개가 줄을 이었는데 살인, 간음, 증오, 애정결핍 등의 차마 공개할 수 없는 죄들이 고백되면서 선교사들이 놀랄 정도였다.

평양대부흥의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부흥의 물결이 번져가면서 신자들 사이에 크게 2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신자들의 윤리적 의식이 성장한 것이다. 살인과 간음, 절도, 거짓말같이 기존의 죄에 더해 축첩, 노비, 제사, 주술 등 이전에는 죄로 보지 않던 것들도 새롭게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인식된 죄들은 사회문화와 제도, 윤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비판할 수 있는 윤리적 안목이 생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성령체험을 하게 된 신자들이 비로소 신앙인이 된 것이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전파될 때, 사회적 엘리트들은 민족의 부강과 자유 독립을 위해 기독교에 입신하였고, 민중계층은 탐관오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이는 먹을 것을 준다는 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 어떤 신자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독교의 가르침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이런 신자들을 선교사들은 쌀교인(Rice Christian)이라 부르며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성령체험은 한국인이 비로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깊이 맛보고 깨닫는 사건이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납득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서 종교 본연의 깊이에 한국인들이 도달하게 된 것이다.

평양대부흥운동은 성경공부와 기도에 열심인 한국교회의 특징이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교회가 침체되고 갈 길을 잃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푯대로 우뚝 서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주 찬양예배는 교사헌신예배로 드렸으며 설교는 고원석 목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학생들을 천국 시민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1시-2시)	날짜	수요일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 (오후 1시-2시)
				6/3	빌립 안드레 베드로
6/4	자원자	6/7	도르가 루디아 뵈뵈	6/10	바울 엘리야
6/11	자원자 마리아	6/14	한나	6/17	모세
6/18	자원자	6/21	에스더	6/24	이삭
6/25	자원자	6/28	리브가		

득녀

- 5교구 오명걸 안수집사·이수민 집사 가정
(오정수 원로장로·이영희 권사 친손녀)

결혼

- 김상윤 성도(청년부, 3부 청년예배 찬양팀)
(높은뜻섬기는교회 김명흡 장로·신미영 권사 아들)
김경민 성도
(목양침례교회 송은숙 권사 딸)
6월 10일(토) PM 12:00, 서울교회 본당 2층

식사 제공

- 4교구 박금영 성도·석상화 권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6월5일	월	욥 11–14	
6월6일	화	욥 15–18	
6월7일	수	욥 19–21	
6월8일	목	욥 22–26	
6월9일	금	욥 27–30	
6월10일	토	욥 31–33	
6월11일	주일	욥 34–36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6월5일	월	요 1–5	
6월6일	화	요 6–8	
6월7일	수	요 9–12	
6월8일	목	요 13–17	
6월9일	금	요 18–21	
6월10일	토	행 1–7	
6월11일	주일	행 8–1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홍해작전 주제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모습으로 저희 삶과 영성을 고쳐주소서.

2. 2023년 홍해작전 새벽 기도회에 모든 다락방,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지와 비전2030군선교지, 농어촌 후원교회를 지켜 주소서.

3.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전쟁과 가난, 기아와 환경파괴 등 창조질서가 유린되고 파괴되어 신음하는 전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내려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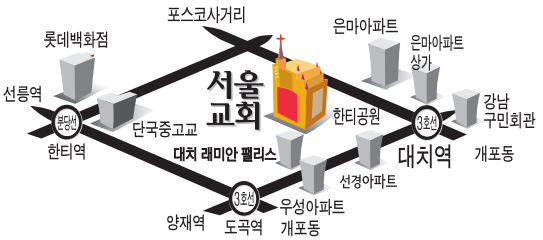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